

도서관 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미국도서관협회 후원 —

Robert B. Downs 記

趙 洙 永 譯

필자는 현재 미국 일리노이 대학 도서관장인 동시에 동 대학 도서관학 교
 표장의 직에 있다. 그는 미국 도서관협회에 의하여 "일본"과 "도이치" 양 도서관
 학교를 설치하는 임무를 띠고 다년간에 걸쳐 일본과 도이치에 가 있던 분이다.
 본 논문은 그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얻은 정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
 로서 이 두 나라의 도서관 사정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흡사함으로 우리나라 도
 서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세계 대다수 국가 도서관의 가장 두렵한 취약점은 효과적이고 재능을 소
 유한 전문직원이 부족함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급
 려의 거렴, 전문직으로서의 "라이브라리언십(Librarianship)"에
 인식 부족, 특히 도서관전문교육이란 안이한 것이라 잘못 이해한데서 연
 유한 것이다. 이에 사상한바와 같은 제 사정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다.
 즉 과거에 고급 수준의 도서관 교육을 실시 하여오지 못했기 때문에 용품 기
 표준이 낮은 동시에 또, 일면 올바르게 도서관 교육을 인식하고 있는 전문
 도서관인이 많이 배출될때까지는 이 문제가 좀처럼 개선 될것 같지
 않다.

세계 여러 국가가 전국내에 도서관학교를 설치 함으로써 또는 해기에 유
 학생을 파견함으로써 전에도 사상한 여러 악조건을 분쇄하기 시작한 첫 출
 발이 되었다. 이것이 취할 두가지 방향이다. 더군다 도서관교육을 받고자 유
 학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이것이 장차 그 나라 도서관계의 지도자가 될 자
 질을 소유한 자에게는 결실히 요망되는 것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수되는
 막대한 경비관계로 제한을 받지 않을수 없다. 도서관 학생에게 보다

경제적이고 또 장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는 자국에 도서관학교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서관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도서관협회에 의하여 일본(日本) "게이오" 대학(慶應大學) 파도이치(狹路英)의 "안카라" 대학(Ankara Univ.)에서 도서관학교 설치를 후원한 데서 얻은 경험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본에 도서관학교를 설치하게 된 원인은, 일본에 주둔했던 연합군총사령부로 부터 온다. 연합군총사령부 점령국은 일본 주요도시에 공보도서관을 설치하였고 또 기타 다른 곳에도 세울 계획을 수립하였었다. 점령국에서 설치한 정보도서관의 직원은 판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자력있는 인재를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연합군총사령부에서는 정보도서관에 배치될 보조직원과 부수적으로 일본도서관에서 일할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도서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연합군총사령부로서는 도서관학교 설치방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도서관협회에 이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연합군총사령부는 옌라프 총독후에 도서관학교를 설치할 준비로서 일본문부성과 국립 국회도서관 및 지도적인 대학의 직원들과 예비회의를 갖기 위하여 일본에 파견되었다.

첫째 확답을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디에다가 도서관학교를 설치할 것인가였다. 일본국의 문화중심지인 "도오포" (東京)이나 "포오도" (東瀨)에 있는 어느 대학에 설치하자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두 도시중 가장 동양적인 냄새가 풍기고 있는 "포오도"에 비하여 보다 서양사상의 감화를 받았으며 각종의 도서관, 중앙정부, 수많은 고등교육기관이 "도오포"에 집중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지대도 넓고 인구도

많은 판자로 "도오포"에 설치할 기세가 농후하였다. 학생들
독수나 장서수가 "포오도"에 비해 "도오포"의 것이 두배나 되었다

다음에는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중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였다.
일본에는 날카로운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정부관리의 하에 또 정부예산
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은 과거에 있어서는 독일대학과 비슷이 어떤 정
책방향을 설정을 갖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켰다. 국립대학과는 대조적으로
"게이오" 대학이나 "와세다" 대학과 같은 유명한 사립대학은 보다 더 자
유로운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교육 사상과 이념이 보다 더 감염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립대학은 전전(戰前)이나 전중을 통하여 많은 박
해와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학교를 설치하는데
사립대학의 명성과 인기 그리고 "도오포"와 "포오도"에 있는 우수
한 교수진을 신중히 비교 참작하지 않을수 없었다.

도서관 학교를 설치할 기과의 최종적인 선정이 1951년 1월에 초
대표장으로 부임한 R. L. 기트리 (Mr. R. L. Gitter) 씨가 일본
에 도착한 후까지도 어떤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재반요소를 신
중히 고려한 후 기트리씨는 학교설치에 관한 재반요구사항을 받아 줄수
있는 기관으로 "도오포"에 있는 "게이오" 대학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트리씨는 일반철학, 서구개념(西歐概念)의 이해와 수입(輸入),
교육사상과 교육예로의 길, 조직 및 관리면에 있어서의 융통성, 영원
한 도서관학교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등등 이런점에 있어
"게이오" 대학을 으뜸으로 보았다 도서관 학교를 신설하는 곳에서는 어
디에서나 으레히 기준 잡는 이러한 표준이 "게이오" 대학에 가추어져
있었다.

다음에 또 해결 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는 유자격교수
의 초빙이었다. 이미 결정된 계획서에서는 일본실정에 적합한 교
과 과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서 도서관학의 기본과목을
담당할 6명(고중/명은 표장)의 교수단을 미국에서 초빙하기로 되어

있었다. 동표수단은 일본인 보조자, 번역자와 사무 직원을 채용하여 부족한 멤버를 보충하였다. 설립당초부터 동 계획의 중요한 것의 하나는 미국인 교수단이 계속하여 일본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승락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계획은 유자적 일본인 교수로 신속히 대처하기로 되어 있었다. 동 계획서에는 전 교수진이 일본인으로 대체될 때까지 매년 1명씩 미국인 교수를 줄이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간표를 지켜 나갔었다. 1956년에 미국으로 돌아간 "기르러프장만이 최종기간 까지 동표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동 계획을 수행하는데 일본인 교수와 미국인 교수가 유용한 것이었다.

대 다수 기업체에서 재정문제를 논의함과 같이 일본 도서관학표에서도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52년에 피 근경이 끝나자 이 이상의 오래 정부자금을 동표를 위해 사용할수 없게 되자 처음으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다행히 "록크웰라" 재단에서 미국 도서관 협회 후원계획이 끝날 때까지 동 표 지출액의 대부분을 찾아하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주기로 하였다. 그러한 동안에 차차로 "게이오" 대학이 인건비 기타 경비를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의 동 재단의 최종보조금은 앞으로 수년 동안 동표교수를 돕고자 3개월간 일본에 파견되는 미국도서관인과, 더 많은 시찰과 연구를 하고자 미국에 파견될 일본도서관인에게 지불할 거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직원의 표환은 미국인 지도에서 일본인 지도에로의 파도기를 순조롭게 해준다.

일본에서 일본 도서관학표를 설치하든 이전의 계획안은 "양카라" 대학에 토이키 도서관 학교를 설치하는데는 부족하였다. 토이키수도 "양카라"에 있는 도서관인들과 표표자들이 자국에 도서관학표를 설치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토이키나 기타 중동지방 여러나라의 도서관인

들은 그 지방에 도서관인 전문교육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단한 애
 로하에서 알아서 왔음을 그들 자신이 자인하고 있었다. 도서관 학교
 설치사업을 위한 "양카라"인들의 열성은 드디어 결실되어 "후오드" 재
 단이 동 사업을 시작하도록 1954년에 "양카라" 대학에 4년간의
 사업보조금을 주기로 허락하였다. 외국인 직원의 채용은 비국인
 표장에게 달려 있었다. 처음에는 새 도서관학교의 설치와 지도에 도와
 줄것을 미국 도서관협회에 요청하였다. 미국도립 상무이사회에서는
 "도이기"의 요청에 따라 그 책임을 맡기로 동의하였다. 일찌기 1955
 년에 필자가 도서관학교 설치 및 첫 학급을 가르치기 위하여 6개월
 을 거기에서 준비하였다. 그 기간중에 적당한교실과 책상을 갖추지 않으
 면 안되었으며 도서관학 자료 및 기타 자료의 수집, 학생등록, 방문
 기타 방법으로 전국에 도서관학교 선전 및 "양카라" 대학 기구내에 동포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최초부터 "양카라" 도서관학교는 교수부족에 직면하였다. 미국
 "스탄호트" 대학의 E. 그리터 (Mr. E. Grieder) 씨는 표장으로서
 최초 6개월간의 임무를 미친후 계속하여 1955-56년 까지 2년간
 그 직을 계속 맡아 보았다. 그 후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L.
 F. 스티고 (Mr. L. F. Stieg) 씨가 그리터씨 후임으로 2년간 표장으
 로 재임하였다. 표장은 표장으로서의 면 업무도 차면 하여야 하며 "도
 이기" 국립도서관장은 불가불 시간강의를 맡지 않으면 안되는프로 교수직은
 현재까지도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다. 교수가 더 보충되지 않고서
 는 완전한 교과과정을 다 할수 없다. 이러한 애로 사실이 "후오드"
 재단직원에 알려지자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1958년 그릴
 에 미국인 교수를 임명 판결할 권한을 미국 도립에 부여 하였다.
 제2 교수직의 1원인 "루이지아나" 주립대학 도서관학교 교수인 "N.
 맥클레란" (Mr. N. McClellan) 씨는 지금도 동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양카라" 대학에서는 여전히 교수부족을 면치 못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동포 교수진은 처음에는 미국인으로 임시 총장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일이다. 영구적인 교수를 발견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관계자에게는 누구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문제이다. 이 점 교수문제는 일본에서 보다 "도이기"에서 더 큰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 도서관학교가 부설되어 있는 "앙카라" 대학은 이 나라의 2개 국립대학중의 하나이다 (타 그개는 현재 설립 중에 있다) "도이기" 대학은 보다 미국류(美國流) 보다는 서구 특히 독일류 형태를 많이 따르고 있다. 교수임명에 대한 엄격한 요구조건 때문에 오랜 경험을 쌓지 못한 자를 교수로 임명 채용하는데 큰 장애를 받고 있다. 동포에 막아오르고 있는 철박한 문제는 1959년에 "쥘로드" 재단의 보조가 끝나기 전에 또한 미국인 교수들이 귀국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유자격 교수를 찾아 낼 것인가? 이다.

그때를 예료(豫料)하여 카탈중의 표목을 받도록 미국도서관학교에 "도이기" 도서관인을 유학시킬 계획이 원래의 보조항목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7명의 유학생이 시카고, 코넬비아, 일리노이, 피사간, 루트거 및 시몬스대학 도서관 학교에서 연구중에 있다. 보조기금을 전부 소박하기 전에 적어도 2명 이상이 연구를 끝마치고 귀국하게 되리라 예기된다. 이와같은 펠로우십(Fellowship)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도이기"의 라이브라러리언십을 높이는 데 있다. 이 계획외에도 수명의 강력한 도서관학교 교수 후보자들도 발견되기를 바란다.

미국도서관협회 협조

"일본" 및 "도이기" 양 사업에 대한 "일본" 및 "도이기" 양 도서관학교와 미국도협간의 연락관계는 대단히 우수하였다. 첫째 미국도협 사무국장 코리(Mr. Cory) 씨와 후임 사무국장 크리프트(Mr. Clift) 씨는 양교의 성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회계 담당자

두리 (Mr. Dooley) 및 웨인 (Mr. Weins) 양 씨도 가능한 노력
가지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신속하게 해 주었다. 근처에 더 미국 호
서관인 자문위원회를 양 표를 위해서 지정하였다. F. B. 루딩톤 (Mr.
F. B. Ludington) 씨 지도하의 "로이카" 도서관 학교 자문위원회는
특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첼로우 (fellows) 를 감독하고 "후오르
재단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또 동표 표장에게 자문 혹은 조언을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베풀었다. 더 긴밀한 접촉은 1957년 봄에
동위원회 위원장인 루딩톤씨가 "앙카라"에 시찰차 방문한 이후부터였다. 현재
방문 동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1958년 봄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표와 장기간에 걸쳐 참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층의 사람들
은 도서관계와 교육계 지도자들이다. 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인,
문교부 보급관리, 대학총장 및 기타 관견을 쥐고 있는 인사들에게
가능한 하루 속히 도서관 학교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인식시켜 줄 필
요가 있다. 이들의 협조, 후원과 공명할 수 있는 이해 등은 도서관 학교
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에 있어서나 "라이브라리언쇼"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받는데 있어 값을 논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결국 도서관 학교는
어떤 것도 없는 동표상대에 심할 수 없는 것이며 생산에 대한 판로 (販路) 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연중과 관계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 이나 "로이카" 양국이 다
같이 특기할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 되었다. 일 예를 들면 "일본 도서관
에 있는 일본 도서관 학교에 대한 일본 도서관인들의 한마음 한뜻의
후원을 얻는 데에 "카트리" 표장이 취한 방법에 대하여 그들은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표장 "카트리" 씨와 그의 보조자들이 5년간의
채류 기간 동안에 쌓아 놓은 일본 도서관 학교에 대한 신뢰심은
앞으로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앙카라 도서관 학교는 아직 버리고 "로이카"
교육제도 위에 단단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으나 지금 바로 동료를 얻
고 있는 중이며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언어의 장애

이외 다른 나라 특히 언어와 풍습이 자국내에서도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도서관 확표를 설치 하는 때는 독특한 문제가 야기된다. 영어가 여러 나라에서 제 2언어가 아니면 이따금 공부하도록 요구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학생들의 말하고 들을수 있는 능력이 개개인에 따라 대단한 차가 있다. 외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전체의 10%로 봄은 잘 본 추산이다. 도서관 확표 학생에게 영어를 읽을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이상의 사정하에서 그들에게 회화와 영어장외를 알아 듣기를 바란다는 것은 실질적이 못된다.

미국인 교수들은 언어문제 해결을 시험해 보았다. 그것은 시간이 짧이 걸리고 불경제 적어기는 하지만 시간에 통역을 대동(帶同)하는 방법이다. 통역은 강사가 영어로 말할것을 자국 말로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표과진행이 대단히 늦어 지며 또한 통역이 두 나라 말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거나 저기에 기술적인 전문 용어에精通하지 않으면 강사의 뜻이 의곡(歪曲)되어 전해 질수도 있고 또 또는 뒤죽박죽이 될 우려도 있다. 이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강의 전제 또는 시작 초에 미리 강의안의 요약(要旨) 요약서(要約書) 또는 개요(概要) 등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 학생에게 분배하여 준다. 유엔회의에서와 같이 동시적인 통역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 경비 때문에 할수 없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이고도 언어의 장애를 극복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영화, 스트립 필름(film strips) 환등기, 레코드 등의 시청각 표구의 이용이다. 이러한 시청각 자료와 도서관학 사료가 "일본"과 "로이거" 도서관 확표에 완전 구비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청각 자료나 인쇄물 자료는 물론 미국의 것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서관계에 관계되는 것은 보다 수집하지 않으면 안되며 생각
권태 타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수집 보관하는 것 보다는 더 뜻 있는 일
일 것이다. 대조적인 것이 역시 도출된다 예를 들면 '게이오' 대학 일본
도서관학표가 개교할 무렵에 우수한 도서관 선전용 '필름'이 일본에서
제작되었다. 이것은 첫째 구형의 도서관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곤란과 실
패 점을 보여 주는 동시에 아울러 미국식으로 설계된 신도서관을 이
용함으로써 얼마나 효과적이며 그 상키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보
여 주는 필름이 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각급 도서관을 순방하여 가지가지의 실제방법을 관
람할 수있도록 순방계획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유효하다 "일본" 주요 도
시에 산재해 있는 미국공보 도서관이 이의 좋은 본보기 도서관이다.
미국의 도서관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도서관의 조직, 참고 및 대출사무,
개가제 등등의 제도가 어디에서나 큰 번력을 일으키고 있다

신설 도서관학표를 시작함에 있어 확답을 받아야 할 첫째 문제는
어떤 종류의 도서관 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이다.

단쪽할만한 표파과정을 소개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일본"
이나 "도이치" (아마 이 두곳이 전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에서는 분
류, 편목에만 힘써 있었다. 이곳 도서관인의 대부분에게는 이러한 기술과
정면이 도서관전문직으로 이해하여 왔다 표도로 발달한 대출, 참고 및 연
구서비스 등에 대한 개념은 알지못하고 있다 어떤 철학 장막이 책과 독자
와를 분리시키고 있었다. 오늘날 도서관 철학은 과거에 중시하여 모든
자료보관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효과적으로 순회 이용시킬 것을 강조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이점을 도서관 학생에게 주
임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도서관학표에 있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라이브러리언십"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기 위해 여서는
미국식 도서관학표 표파과정에 기술과정만이 아니라 면중봉사 또는 도서
관 사업의 사회적 면도 포함시켜야 한다 정상적이고 건보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흔히 찾아 볼수 있는 청소년도서관원, 학교도서관원, 독서관내원, 참고도서관원, 및 기타 여러 분야의 전문 도서관원을 가르는데 있어 이방법이 대단히 도움되리라 본다, "앙카라"와 "일본"의 도서관학교의 효과과정을 정하는데 있어 상기 기준에 준하였다. 앞으로 양 국가에서는 자국도서관 사업을 수행하여 나가는데서 부닥치게 될 문제를 쉽사리 해결할수 있으리라고 보는 의심할바 없다 도서관학교를 대학원수준으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수준으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효과과정에 관계된다 "일본"과 "토이기"에서는 이 두나라 사정에 정통한 교육자들의 권고로 대학 4년 과정의 도서관학교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원과정의 도서관학교 설치 문제는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 두나라에서는 학생이 적고 또 대학원 연구에 대한 열(熱)이 적고 게다가 도서관직에 대한 보수가 낮아서 고급 수준의 연구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요소를 고려한 나머지 대부분의 효과과정을 대학 3년 또는 4년제로 집중시켰다.

일본 및 토이기도서관 양 학교도 역시 공개 강좌를 열 필요를 느꼈다. 나라마다 현지 도서관인의 대부분이 자기들의 전문 자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점을 취득치 않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두 학교 교수들은 도서관학교 외에 단기 강습, 특별강의, 필요한 자문, 근무시킴교자 도서관을 방문하는 등의 일에도 종사하였다. 이런 류(類)의 활동이 그 나라 도서관의 표준을 세울수 있는 가장 유익한 공헌 중의 하나가 될것이다

결론

"일본"과 "토이기"에서만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얻은 결론이 보편 타당하다고는 볼수 없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와 뒤미처 현대 도서관 발전을 이룩한 국가에서 실제로 당면하고 또 해결했던 문제 가운데서의 유사점(類以點)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43
내릴수는 있으리라 믿는다.

첫째 우리가 미국의 도서관 철학이나 방법 및 기술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실 이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는 바를 외국에 전함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 전문 교육을 받고자 미국에 유학온 외국학생을 통하여 또는 외국에 미국식 도서관 학포를 설치 함으로써 미국이 하고 있는데로의 "라이브라리언십"을 전해 줄수 있다 이 두가지가 다같이 장점을 갖는 동시에 그 나라도서관 발전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나 그전부터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포를 자극하는 것이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 나라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러한 학포는 다른 학포에서는 도저히 이룩할수 없는 지도력과 고취를 할수가 있다.

셋째 미국의 것을 모범하여 만들려고 한다면 완전한 학포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 교수와 같이 시작하는 것이 분명히 이익이 있다. 세계 통화와 미국에서의 급료 지불액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후원하는 기간동안의 재정적인 후원은 재단이나 그 나라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국인 교수가 그 나라 도서관계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도록 하자면 적어도 5년은 있어야 할것이다.

넷째 도서관 교육에 참가한 미국인은 임시로 근무하는 것인 동시에 오직 초창기의 기초 사업만을 마련하는 책임에서 당초부터 그들이 커다란 날 인계맡아서 할수 있는 유자격자 국민을 주의하여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도서관이나 도서관 학포가 주는 장학금은 수명의 도서관인을 위락시키는데 도움될 것이며 학술적인 인식과 자국에서의 신망을 그들에게 줄것이다.

다섯째 미국에서도 볼수 있듯이 도서관 학포가 대학에 부설되는 것이 학술면이나 전문적인 면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외국대학에서는 도서관학이 교과과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보수적인 대학 전통 때문에 새로운 학문을 받아 들이는데 면속하지 못하다 그런데 미국의 후원과 재정보조가 이러한 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 준다 또한나는 편재 튼튼한 기반을 닦으려는 도중에 있는 도서관학표를 원조한다는 것이다.

더섯째 미국도서관학표의 교과과목이나 철학을 변경시키지 않은 채로 그대로 외국에 옮겨 놓고자 시도한다는 것은 큰 오류(誤謬)를 범하는 것이다. 그 나라의 사정이나 필요, 발전무대 등 이러한 요소가 나라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 나라 제반 사정을 광범위하게 사전에 요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는 언어의 장애 때문에 미국인 교수가 실질적인 대담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에 있는 미국인에게 최대한으로 그 나라사정에 응동 적응 할 수 있고 최저한으로 독단을 부릴 수 있는 특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하여 전부 다시 시작하고자 애쓰기 보다는 오히려 현상 그대로 두고 그 중에서 좋은 점,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점을 찾아 내어야 한다. 가끔 특별한 과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더 기대하는 바라는 것을 미국인 교수는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역사와 문학, "중국" 역사와 문학은 외국인 보다는 그 나라의 학자가 강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편리할 때에는 이러한 인사를 이용하는 것이 학표 강의와 민중관계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일곱째 자기 나라에서 또 외국으로 부림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도서관학표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교육계, 정부 및 도서관계 지도자에게 학표의 현재 문제와 진행 상황을 보고 하고 그들과 그들의 관심과 후원 및 협조를 받는 것이다 외국과는 미국도서관 협회 특히 자문과 요망사항에 대하여 도와 줄 수 있는 정부 구성 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접촉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불리 해외에 떨어져 있는 미국도서관 협회식 명성은 대단히 큰 동시에 여러모로 이익 볼 수 있는 공적인 관계를 갖

표 있다

가장 먼저 선행하는 것은 "일본"과 "토이기"에서 신도서관학표를 창설할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몇가지 권속과 문제등이다. 비표적 "라이브러리언션"이 발달되지 못한 국가에서 신도서관학표를 설치 할에 있어 이 두나라와 비슷한 사정을 반드시 찾아 낼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강력한 도서관 전문교육이 "일본"과 "토이기" 두나라의 도서관 운영을 무한히 큰세게 하여 주었다. 새로운 도서관학표를 설치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이와 꼭같은 일이 다른 데에도 일어 날 것이다.

-끝-

필자의 번역승락서

UNIVERSITY OF ILLINOIS LIBRARY
URBANA, ILLINOIS
July 30, 1958

Mr. SOO Young CHO
Korean Library Association
Sokong-Dong 6
Seoul, Korea

Dear Mr. Cho: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July 24. I am glad to hear that you are interested in my article, "How to start a Library School," in the ALA Bulletin. I shall be pleased to have you translate the article into Korean for publication in your Korean Library Association Bulletin. I would be pleased to receive a copy of the bulletin in which the article appears

with best wishes

Sincerely yours

R. B. Downes
Director

R B D. CG